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프리다 칼로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연구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이 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프리다 칼로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연구

Design proposal study : Art masks that applied
features of Frida Kahlo's Painting

2016년 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이 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프리다 칼로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연구

Design proposal study : Art masks that applied
features of Frida Kahlo's Painting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이 규 진

이규진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프리다 칼로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이 규 진

최근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현대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에 다양한 장르의 접목을 시도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예술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뷰티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술가들이 코스메틱 업체와의 콜라보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아트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아트메이크업이나 헤어아트, 네일아트 작품에 응용하여 뷰티분야에서 표현의 다양성과 영역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초 초현실주의와 페미니즘의 작가 중 대표적인 여성화가인 프리다 칼로의 회화 작품을 분석하고 응용하여, 그녀가 작품을 통해서 표출하고자 했던 작가의 감성을 모티브로 아트마스크 디자인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형성 배경 및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작품 속에 볼 수 있는 주제적 특성, 조형적 특성, 색채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그녀의 작품을 선정하여 특징을 분석한 회화를 6작품을 선정하고 작품들의 특성을 응용하여 6작품의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힘든 자신의 현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대표적인 여성화가로

떠오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작품세계를 관찰해보고 작가의 작품을 응용하여 아트 마스크로 표현함으로써 회화적 특성을 재표현하여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내외 문헌과 선행논문, 학술지 등의 고찰을 통하여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회화의 작품세계, 작품 형성 배경, 주제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 색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색채, 조형적 특성을 디자인에 접목시켜 6개의 아트마스크를 제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다 칼로의 초기의 회화작품은 낮은 채도와 명도를 가지고 있고, 중·후반기의 작품은 높은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있다. 색채적 요소만으로 아트마스크 제작을 하였을 때 각 시기의 작품들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색채만으로 상반된 느낌을 주고, 고명도와 고채도의 작품들은 보다 화려한 느낌을 주어 아트마스크를 디자인 하는데 적합하였다.

둘째, 회화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만큼, 표현과 소재에 제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여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였다.

셋째, 작품에서 주된 주제는 대부분 작가 자신으로 매번 같은 주인공으로 마스크 디자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배경과 함께 등장하는 식물, 꽃, 동물 등의 요소들로 인하여 응용하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패션, 미술학적, 치료적 관점에서만 두각을 나타내었던 프리다 칼로 작품의 응용분야가 더욱 확장되고, 풍부한 색감과 다양한 이미지의 재해석으로 그간 난해하고 어려웠던 작가의 작품이 좀 더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며 뷰티 분야에서 더욱 더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프리다 칼로, 회화, 아트마스크, NCS 색채, 디자인

목 차

I. 서 론	01
1.1 연구의 목적	0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02
II.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세계	03
2.1 프리다 칼로의 생애	03
2.2 프리다 칼로의 작품세계	08
2.2.1 초현실주의	08
2.2.2 페미니즘	10
2.2.3 멕시코 전통 미술	13
2.3 프리다 칼로의 작품형성배경	15
III. 프리다 칼로의 작품의 회화적 특성 분석	20
3.1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주제에 따른 특성 분석	20
3.2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27
3.3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색채적 특성 분석	31
3.3.1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32
3.3.2 NCS를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34
IV.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48

4.1 작품 의도 및 방법	48
4.2 프리다 칼로의 회화작품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49
4.2.1 작품 I. 금발의 여인	49
4.2.2 작품 II. 꽃의 노래	54
4.2.3 작품 III. 회상	61
4.2.4 작품 IV. 오로라	66
4.2.5 작품 V. Miss You	72
4.2.6 작품 VI. 가면	76
 V. 결 론	 81

참고문헌	84
------------	----

ABSTRACT	88
----------------	----

표 목 차

<표 1> 프리다 칼로 회화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30
<표 2>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 NCS 색채 분석	34
<표 3> ‘꽃바구니’ NCS 색채 분석	36
<표 4> ‘라 아델리타, 판초 비야 그리고 프리다’ NCS 색채 분석	39
<표 5> ‘내 마음 속의 디에고’ NCS 색채 분석	42
<표 6>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NCS 색채 분석	44
<표 7> ‘Self Portrait The Frame’ NCS 색채 분석	46
<표 8> 작품 I 금발의 여인 디자인 시안	51
<표 9> 작품 I 금발의 여인 마스크 디자인	52
<표 10> 작품 I 금발의 여인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53
<표 11> 작품 II 꽃의 노래 디자인 시안	56
<표 12> 작품 II 꽃의 노래 마스크 디자인	57
<표 13> 작품 II 꽃의 노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58
<표 14> 작품 II 꽃의 노래 마스크 디자인 변형	59
<표 15> 작품 III 회상 디자인 시안	63
<표 16> 작품 III 회상 마스크 디자인	64
<표 17> 작품 III 회상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65
<표 18> 작품 IV 오로라 디자인 시안	68
<표 19> 작품 IV 오로라 마스크 디자인	69
<표 20> 작품 IV 오로라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70
<표 21> 작품 IV 오로라 마스크 디자인 변형	71
<표 21> 작품 V MISS YOU 디자인 시안	73
<표 22> 작품 V MISS YOU 마스크 디자인	74
<표 23> 작품 V MISS YOU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75
<표 24> 작품 VI 가면 디자인 시안	78
<표 25> 작품 VI 가면 마스크 디자인	79
<표 26> 작품 VI 가면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80

그림 목 차

<그림 1> 프리다 칼로	03
<그림 2> 프리다 칼로 미술관	03
<그림 3> 그들은 비행기를 요구 했으나 오직 짚으로 된 날개만을 받았다	05
<그림 4> 디에고 리베라	05
<그림 5>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06
<그림 6> 자화상	06
<그림 7> 물이 내게 주는 것	09
<그림 8> 부러진 척추	12
<그림 9> 꽃을 가진 여인	14
<그림 10> 미개의 시	14
<그림 11> 호랑이와 물소의 싸움	14
<그림 12> 나의 출생	16
<그림 13> 조부모와 부모와 나	16
<그림 14> 유모와 나	16
<그림 15> 나의 가족	16
<그림 16> 옥수수 신을 낳는 트라졸테오틴	18
<그림 17> 대지의 여신	18
<그림 18> 프리다와 유산	21
<그림 19> 헨리포드 병원	21
<그림 20>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22
<그림 21>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	22
<그림 22> 테우아나 차림의 자화상	23
<그림 23> 아텔리타, 판초비야 그리고 프리다	24
<그림 24> 디트로이트 거리의 디스플레이	25
<그림 25> 꽃바구니	26
<그림 26> 보니토와 함께 있는 자화상	28
<그림 27> 프리다 칼로 회화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32

<그림 28> 프리다 칼로 회화 작품의 배색컬러 이미지 스케일 32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60년대 말 이후 확산된 페미니즘 운동으로 미술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류화가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프리다 칼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페미니즘적인 요소 이외에도, 작품을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초현실주의적 요소나 멕시코 전통에 따른 방식으로 회화를 표현한 멕시코니즘적인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보통의 페미니즘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자연의 색을 그대로 차용하여 원색적인 색채를 본인의 작품을 통해 녹여냈으며 여성의 현실과 이에 대한 체험을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현실, 정서적인 고통, 불안, 사랑 등을 중심으로 매일 겪고 있는 그녀의 현재를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초현실주의적 경향과 그녀 스스로가 멕시코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과 멕시코의 전통적인 표현방식을 그림에 투영하는 개성적인 기법을 보여주었다(최은경 2007). 작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와 자화상 안에서 입고 있는 멕시코 전통 의상으로 패션 혹은 미술치료, 심리치료와 관련된 주제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만나볼 수는 있지만 뷰티 분야, 특히 뷰티 아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아트마스크는 인간의 얼굴이 아닌 마스크, 면 위에 작가의 개성에 따라 디자인하여 오브제와 표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술성을 중시하는 뷰티 메이크업인 아트 메이크업에 속하며 조형 예술의 한 분야이다(김영숙 2003). 또한 초현실주의의 특성인 기존 형식의 틀을 깨는 새로운 표현기법이 차용되기도 하며(배찬우 2013) 메이크업의 한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작가의 의도를 다양한 오브제와 콜라주 등의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표현된 회화의 주제에 따른 특성과 조형적 특성, 색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응용하여 본 연구자의 재해석으로 아트마스

크 디자인을 제안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과 그녀의 작품은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패션 등 영역을 넘나들며 재표현 되며 회자되고 있지만 뷰티 분야에서는 그 경우가 드물어 아트마스크에 접목시키면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의 색채와 이미지를 다양한 오브제와 결합으로 재표현, 디자인하고 응용하고 연구하여 작가의 회화작품이 아트마스크 뿐만 아니라 아트메이크업, 판타지 메이크업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대되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문헌고찰을 통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작품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회화적 특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품의 주제에 따른 특성과 조형적 특성, 색채 분석을 통하여 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아트 마스크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다 칼로의 전문서적, 선행 논문, 기타자료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초현실주의, 페미니즘, 멕시코 전통 미술로 나누어 분석하고 작품의 형성 배경에 대해 연구한다.

둘째,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주제에 따른 특성, 조형적 특성, 색채 특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재해석하고 응용 및 변형하여 마스크를 디자인을 하고, 이미지 스케일 및 NCS색채 분포도, NCS명도채도분포도의 분석을 통해 색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오브제 및 콜라주 기법 등을 응용하여 마스크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Ⅱ.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세계

2.1 프리다 칼로의 생애

프리다 칼로(1907. 7. 6~1954. 7. 13)<그림 1>는 헝가리게 독일인 사진 작가였던 아버지 길레르모 칼로(Guillermo Kahlo)와 인디오와 스페인의 혈통이 섞인 어머니 마틸데 칼데론 곤잘레스(Matilde caldron Gonzalez)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고 본명은 막달레나 카르멘 프리에다 칼로(Magdalen Carmen Frieda Kahlo)로 알려져 있다.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시티의 교외 인근의 작은 마을 코요아칸(Coyoacan)에서, 현재는 ‘프리다 칼로 미술관’으로 불리는 인디오 양식으로 지어진 ‘푸른집(The Blue House)’<그림 2>에서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림 1> 프리다 칼로

<http://blog.naver.com/ttlhappy/220473286972>



<그림 2> 프리다 칼로 미술관

<http://www.travel4life.com.mx/tour-frida-y-diego/>

그러나 프리다는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1910년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해왔고 이는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 때문에 멕시코 혁명의 시기에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훗날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멕시코의 전통과 민족성의 이미지가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 해준다.

사진작가이면서 아마추어 화가였던 아버지로부터 예술적 감수성과 예민한 감성을 물려받았고 멕시코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었다. 사진을 찍는 법과 카메라 사용방법에서부터 필름을 현상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특히 완성된 사진에 붓으로 물감을 적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 사진 제작 기술도 전수해주었다. 훗날 프리다 그림의 형식적 특징이 되는 세밀한 사실주의 기법의 기본기를 습득하였고 아버지의 인물 사진 형식은 프리다가 초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권나현 2012),(송미성 2007).

프리다는 6살에 척추성 소아마비로 아홉 달 동안 방에서 나올 수 없었고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 또래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갇혀서 지낸 결과 외향적이던 성격은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외로움과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한 기억은 평생을 걸쳐 그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1938년의 작품 <그림 3>이 그 예이다.

1922년 프리다는 가난한 집안과 병약한 어머니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했고 멕시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예비학교(National Prepatatory School)에 입학하게 되었다. 전교생 2,000여명 중 35명의 여학생 중에 한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 학교는 훗날 프리다가 미래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그림 4>를 만나는 곳이기도 한다. 독서광이었던 프리다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특히 미술과 관련된 책과 논문을 즐겨 읽었는데 특히 16세기 플로렌스 화가인 ‘파올로 우첼로(Paolo Uccello)’의 “Imaginary Lives”라는 제목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자신의 일기에 드로잉을 그리곤 했는데 프리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미간이 붙은 눈썹을 이때부터 보이고 있다. 문학에도 관심과 자질을 보여 ‘카추차스(Cachuchas)’라는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프리다의 첫사랑인 알레한드로 고메스 아리아스(Alejandro Gomes Arias)와 만나게 되었다. 프리다의 진짜 친구들은 이 모임



<그림 3> 그들은 비행기를 요구 했으나 오직 짚으로 된 날개만을 받았다
(1938, 판지 위에 유채, 59x84cm)



<그림 4> 디에고 리베라
<http://blog.nec.go.kr/220618292210>

의 회원들이었는데 이들은 후에 멕시코 사회의 주요인사로 성장하게 된다.

1925년 9월 17일 프리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사고가 생기게 된다. 멕시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남자친구인 아리아스와 프리다의 집이 있는 코요아칸으로 가던 중 그들이 탄 버스 옆쪽을 근처를 지나던 전동차가 들이 받는다. 다수의 부상자와 몇 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고로 프리다는 척추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오른쪽 발이 으스러졌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것은 버스부속 철제기둥이 버스와 전동차의 충돌 시 떨어져 나와 하반신과 함께 자궁을 관통하게 된 것이다. 살아났지만 이후로 평생 동안 멕시코와 미국을 넘나들며 32번의 외과수술을 받게 되었고 커다란 심리적, 육체적 아픔을 겪었다.

프리다는 사고 이후 약 일 년 동안 척추 교정용 코르셋을 착용하고 병실에 갇혀 지내야 했다. 특별 주문된 이젤을 침대위에 놓고 거기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프리다 칼로가 화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사고를 당한지 근 일 년 만에 첫 유화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림 5>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그려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프리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그녀의 첫사랑은 끝났다. 사고 이후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전념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의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을 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다.



<그림 5>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1926, 캔버스에 유채, 79.7x60cm)



<그림 6> 자화상
(1929, 메소나이트에 유채, 77.5x61cm)

프리다가 21세가 되던 1928년 몸이 회복하면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진작가이자 좌익파로 활동했던 티나 모도티(Tina Modotti)를 통하여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를 만났다. 당시 디에고의 나이 41살이었고 프리다의 나이는 19살이었는데 프리다는 자신이 다니던 국립예비학교의 벽화를 그렸던 디에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디에고의 화가로서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 프리다는 디에고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몇 점을 보이고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가 솔직한 평을 구하기도 한다. 디에고는 한눈에 프리다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격려했으며 이러한 그의 격려는 평생 동안 계속 되었다. 이 후 둘은 가까워졌고 1929년 8월 21일 결혼을 했으며 디에고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 결혼 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었다. 멕시코 예술계에서는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는 첫 번째 여성 화가가 되었고, 이 부부의 멕시코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은 그들이 수집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전통미술품들이 증명해주는데 1929년에 그린 <그림 6>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프리다는 “나는 일생 동안 두 번의 중대한 사고를 겪었다. 하나는 전차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였다.”라고 말했다(헤이든 헤레라, 1992). 짐작할 수 있듯이 디에고의 스캔들과 잦은 외도, 프리다의 불임과 유산으로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건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다.

1930년 첫 임신을 했지만, 기형적인 골반으로 인해 강제 유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고 1932년 디에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미술관으로부터 대형 벽화의 제작을 의뢰받아 시작하게 되면서 디에고와 함께 디트로이트에 머물게 되었는데 자궁 출혈이 너무 심해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되었다. 타지생활의 외로움과 디에고의 잦은 외도로 더욱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프리다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프리다는 우울증을 보인다. 1933년 멕시코로 돌아왔고 27세가 되던 해에 오른쪽 다리 수술과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고 세 번째 유산을 하게 된다. 이때 프리다의 간호를 하던 프리다의 동생 크리스티나와 디에고는 연인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편력을 인내했던 프리다는 남편과 여동생으로부터 동시에 당한 배신으로 1939년 디에고와 이혼한다. 디에고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배신감은 1930년대 말까지 그려진 여러 자화상의 주된 주제가 된다(송미성, 2007).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프리다는 이러한 현실을 잊고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데 1938년 뉴욕의 「줄리앙 레비 화랑」에서 그녀의 생애 첫 개인전을 갖는다. 이듬해에는 파리의 ‘콜 갤러리(colle Gallery)에서 열린 「멕시코전」에도 참가한다. 이 전시회에서 초현실주의의 창시자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과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1940년 프리다의 연인이었던 트로츠키는 암살당했고 이후 여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는 등을 조건을 내걸고 디에고와 재결합 하고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다(박정민, 2008).

1942년 라 에스메탈다 미술학교 교수로 선임되고 이후 약 13년 동안 그곳에 교수로 등록되었다. 1944년에는 교육부 후원의 대중 벽화전을 위한 위원

회에 초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때 프리다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1946년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고 같은 해 프리다는 정부가 보조하는 보조금을 받는 여섯 명의 예술가 중 한사람이 되었다. 1950년 초부터 프리다의 병세는 악화 되었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증세로 오른쪽 발가락을 절단했다. 1953년에는 로라 알바레스 브라보의 현대 미술화랑(Lola Alvarez Bravo's Gallerri's Arte Contemporaneo)에서 프리다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는 디에고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고 고국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었다. 이듬해 프리다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했다. 이때부터 1년 동안 프리다는 거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프리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디에고와 함께 공식적인 규모의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이것이 그녀가 공공장소에 나타난 마지막 이었다. 7월 13일 극심한 폐렴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였다(송미성, 2007).

2.2 프리다 칼로의 작품세계

2.2.1 초현실주의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초현실주의적 작품이라고 처음 언급한 사람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이론적 대변자였던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이다. 앙드레 브르통이 1938년 멕시코를 방문하여 프리다의 작품을 보고 열광하며 초현실주의 계보 안에 그녀를 끌어 들였다(박의만, 2006).

초현실주의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까지의 미술사조인데 초현실주의라는 말은 작가인 기욤 아폴리네르(Gillaume Apollinaire)가 처음 사용하였고 1924년 앙드레 브르통에 의해 ‘초현실주의 선언문’이 발표되며 개념이 분명해졌다(박지은, 2015). 초현실주의의 뿌리는 다다이즘(Dadaism)으로 볼 수 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미국과 유럽대륙에 뿌리를 두고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과거의 모든 예술의 형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반도덕적·비합리성·비심미적인 것을 찬미한 운동이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새로운 기법인 콜라주, 직접적인 표현기법인 오브제와 비도덕적인 자세를 그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체주의의 계열을 잇는 공간과악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두산백과,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인 환상과 공상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은 꿈과 현실세계를 연결함으로써 완벽한 현실 세계를 창조하려는 목적을 추구했고, 무의식의 세계를 상상력의 원천으로 간주했으며 기존의 공간의식과는 별도로 비현실세계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하였다. 오스카 도밍게스의 데칼코마니(decalcomanie), M.레이의 레요니즘(rayonnisme),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프로타주(Frourag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초현실주의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새로운 현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미술사조로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조활동의 표현과 원동력이 되었으며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배찬우, 2013).



<그림 7> 물이 내게 주는 것
(1938, 캔버스에 유채, 91x70.5cm)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초현실주의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은 <물이 내게 주는 것><그림 7>이다. 프리다는 목욕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욕조 안 물 속에 비친 희미한 두 다리를 그렸는데 발끝이 욕조 밖으로 나와 물에 반사된 모습은 살찐 게를 연상하게 하고, 불구가 된 엄지발가락의 벌어진 상처는 프리다 본인이 겪었던 사고와 이후의 수술을 암시한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요소는, 각각의 사물을 위치하던 친숙한 공간에서 가지고 나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형태들을 함께 병치하고 제시함으로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를 표현 하였다(박의만, 2006).

앙드레 브르통은 프리다 자신이 초현실주의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그녀의 초현실주의 요소를 ‘순수 초현실주의(Pure Surre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녀가 화가로써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은 초현실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앙드레 브르통을 만난 이후 프리다의 작품세계도 초현실주의적 특징이 구체화되며 조금씩 바뀌어 갔다. 작품에 심리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상징적인 형상에 대하여 의존을 고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전적으로 초현실주의의 틀에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은 그녀의 그림에서 보이는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는 그녀가 매일을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이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다른 영역에서 고안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송미성, 2007).

2.2.2 페미니즘

한동안 잊혀졌던 프리다 칼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페미니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였다. 프리다의 작품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누구보다도 포괄적이고 솔직하게 작품으로 승화시킨 미술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페미니즘(Feminism)이란 기존의 성별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보아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재정립시키고, 동등한 성(gender)으로서의 여성성을 획득하려는, 여성의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인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모든 권리와 확장을 주장하는 여권주의 즉, 여권신장운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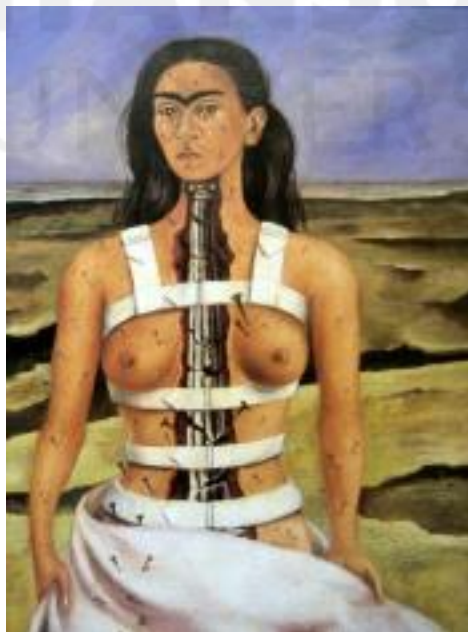
에서 페미니즘 또한 그동안 괘시 받았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실례를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작품에서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의 존재에 대한 반성과 미술 제작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세우려는 움직임이었다(윤영순, 2006).

19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은 1971년 미국의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 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노클린은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만들어 내고 남성 미술인들의 천재성을 강조하면서 여성 미술인들을 소외시켜왔고, 천재 여성 미술인이 있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게 불리한 교육 제도와 사회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미술가들을 더욱 발굴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의 작품을 알리는 전시회에 주중하게 된다. 1969년 결성된 “WAR”(Women Artist in Revolution 1963)는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최된 1969년 연례 전에서 참석한 여성 미술가들이 적은 것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일을 계기로 1970년대 들어 많은 여성단체가 결성되며 여성 작가들만의 전시회가 열리고 페미니스트 관련 잡지들이 등장하였다(박정민, 2008). 특히 1973년 평론가인 클로리아 오렌스타인(Gloria Orenstein)은 「The Femisist Art Journal」의 미술잡지에 「프리다 칼로 : 기적을 위한 그림」이라는 소논문을 게재했고 프리다가 표현해내었던 여성적 이미지들을 논의하면서 여성의 생물학적 경험을 극적인 그림으로 처음 묘사한 여성들 중 한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 미술가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는 “프리다 칼로는 남성의 눈을 통해 본 진리만이 수용되던 시대에 여성의 눈을 통하여 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진정한 페미니스트 화가이다. 그리고 그녀는 특유한 고통 속에서 고뇌하는 여성을 그렸고, 여성적인 능력과 함께 우리가 남성성과 연결 짓는 강철 같은 의지로 작용하는 능력도 지녔다(헤이든 헤레라, 1990. P.112).”고 말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누드나 자신의 신체를 빗대어 제작한 작품이 많은 것인데 이는 기존에 누드와 관련된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여성의 누드는 남성을 위해서, 남성 후원자들 혹은 남성화가들에 의해 주로 제작되었다. 당시의 누드는 남성들에게 즐거

움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요소였고, 여성은 성적 소모품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19세기의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표출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다의 누드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누드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여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감상자가 편안하게 음미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부러진 척추><그림8>은 그것의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림은 X-레이로 몸 안을 보듯 몸을 반으로 갈라 몸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솟아오른 이오니아식 기둥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고 코르셋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한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여타의 누드화들과는 분명하게 다르며, 그녀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여성들만의 세계에 대한 표현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이용미, 2010).



<그림 8> 부러진 척추
(1944, 캔버스에 유채, 30.5x40cm)

2.2.3 멕시코 전통 미술

프리다 칼로 미술의 태생은 멕시코 전통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녀는 실제로 1907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10년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해에 태어났다고 할 만큼 멕시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 민족적 정체성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다. 그녀의 예술의 근원은 지속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 고통을 받는 자아에 대한 탐색과 함께 멕시코 혁명 이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멕시코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회복하여 그들 나름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데 있다(이유니, 2009). 1910년 민족적 색채가 강했던 멕시코 혁명 이후 스페인에게 정복되어 4세기 동안 뒤떨어졌던 멕시코 원주민과 그 문화, 야만적으로 간주되어 멀리 당했던 멕시코의 전통문화를 부활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멕시코 정부의 지원 아래 인디오 문예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멕시코 미술의 르네상스가 열린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전의 멕시코 내의 모든 예술, 문화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요소를 부활시키려 노력한다. 근대 멕시코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프리다 칼로 역시 멕시코 혁명의 동참자로 프리다의 작품 안에서도 멕시코 전통 미술이 엿보인다.

프리다는 멕시코 전통 미술을 반영함에 있어 원시주의의 영향을 받는데, 작품의 형식적 틀은 아즈텍 미술로 대표되는 콜럼버스 이전 시기의 조각품, 식민 시대의 토착문명과 결합된 미술, 그리고 대중 미술을 근거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으로 회귀와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얘기하던 원시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그녀는 고갱과 루소의 원시주의와 판타지를 작품 속에 녹여냈다. 원시 예술의 모티브를 찾아 타히티로 떠났던 고갱의 작품 <꽃을 가진 여인><그림 9>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채와 자연에 대한 묘사, <미개의 시><그림 10>처럼 신앙이나 신화를 신비하게 상징적으로 그려낸 작품들과 비슷한 소재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고갱의 자화상의 표현 형식 또한 프리다의 자화상 표현 형식과 비슷하게 닮아있다. 또한 원시 밀림을 아름답게 표현한 루소의 작품 <호랑이와 물소의 싸움><그림 11> 등에서 보여지는 자연을 표현하는 자세 또한 프리다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프리다의 원시주의는 판타지적으로 원시주의를 해석하는 고갱과 루소와는 달리 멕시코 전통미술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9> 꽃을 가진 여인
(1891, 캔버스에 유채, 70x76cm)



<그림 10> 미개의 시
(1848, 캔버스에 유채, 48x65cm)



<그림 11> 호랑이와 물소의 싸움
(1844, 캔버스에 유채, 55x46cm)

2.3 프리다 칼로의 작품형성 배경

프리다 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 아마추어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였던 아버지의 스튜디오에서 일을 배우며 카메라 사용법과 사진 찍는 법 등을 배웠고, 부친과 함께 고고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눴다. 그런 아버지의 꼼꼼함과 세밀함이 후에 프리다의 사실적인 화법에 영향을 주었다. 그녀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조국의 고대 문명과 애국심, 혁명 이념 및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녀의 작품 소재, 형식, 주제에서 멕시코 전통 미술적 요소가 등장한 것은 결혼 이후 멕시코 전통 미술에 심취해있던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영향이 컸고 더욱 더 창의적인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다(박현주, 2011). 어렸을 때 당한 교통사고와 술한 수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는 잦은 외도와 스캔들로 프리다를 더욱 더 피폐하게 했고 임신과 아이를 원했던 프리다는 총 세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다. 유산과 잦은 고통들은 프리다에게 상실감을 가져왔지만 작품에 몰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프리다는 자신의 작품을 아이와 동일시하였다. “내 그림은 고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림은 삶에 의해 완성된다. 나는 세 아이를 잃었다. 그림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다(헤이든 헤레라, 1992, P.202-203).”고 했던 것처럼 유산, 장애, 남편의 외도 등 그녀의 고통은 작품으로 승화되는데 그녀의 작품형성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혈통에 대한 호기심과 집착을 형성배경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유럽계인 아버지와 스페인계와 인디오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프리다는 일찍이 자신의 혼혈적인 혈통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집착을 보이는데 1930년 초부터 죽는 해인 1954년까지 그녀의 자화상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1932년에 그린 그림 <나의 출생(My Birth)><그림 12>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자신이 태어나는 모습을 상상한 작품으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 유일하게 출산에 대해 표현되었다. 1936년에 그린 <조부모와 부모와 나><그림 13>에서는 가계도와 자신이 태어난 집을 그렸는데 가족의 초상화를 묶어놓은

듯하다. 프리다는 자신을 벌거벗은 아이로 표현했고,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을 나타내는 붉은 리본을 잡고 있다. 이 리본은 둘로 나뉘어 왼쪽은 멕시코 땅 위에 그려진 외조부모와 오른쪽은 바다 위에 그려진 친조부모들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나뉘어져 있는 붉은 리본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자신의 혼혈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박현주, 2011). 이외에도 <그림 14>, <그림 15> 등으로 혈통과 뿌리에 대한 애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집착은 프리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림 15>는 프리다의 가족들을 나열하여 그린 작품으로 프리다가 죽을 때까지 그렸던 그림이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작품이다. 또한 평생 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한 프리다는 끊임없이 아이를 원했지만 계속 되는 유산과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림 12> 나의 출생
(1932, 금속판에 유채, 30.5x35cm)



<그림 13> 조부모와 부모와 나
(1936, 금속판에 템페라와 유채, 30.7x34.5cm)



<그림 14> 유모와 나
(1937, 금속판에 유채, 30.5x37cm)



<그림 15> 나의 가족
(1950~54, 메소나이트에 유채, 41x59cm)

두 번째 멕시코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주제, 소재, 형식적인 면에서 멕시코 전통 미술포함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멕시코 전통 예술품들이 소장된 자신들만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대 예술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고, 고대 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그녀만의 독특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 멕시코 민중예술과 민족주의 예술에 잠재해 있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박현주, 2011).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들을 살펴보면 신들을 묘사한 조각상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자신을 신성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자신의 출생 장면을 그린 <그림 12>는 멕시코 고대 미술인 아즈텍(Aztec) 시대 여신의 조각상 ‘옥수수 신을 낳는 트라졸테오틀(Tlazolteotl)’ <그림 16>이 묘사한 충격적인 순간의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 또한 가면을 쓴 원주민 유모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을 그린 <그림 14>에서 유모가 쓴 가면 역시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서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신 ‘케찰코아틀’의 모습 <그림 17>과 유사하다. 상반신은 나체의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검정색 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은 자신과 케찰코아틀의 혈연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신격화 하고 있다(박현주, 2011). 이처럼 프리다의 작품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멕시코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필수요소인데 기원전부터 중앙 멕시코 고원지대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들이 대동하여 개화했다가 소멸하였다. 메소아메리카에는 마야문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남긴 상형문자나 예술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왕의 절대 권력과 그 왕권 위에 군림하는 신의 이야기와 종교관, 우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으로 나눌 수 있다(이성민, 2005). 마야문명은 치밀하고 사실적이며, 세련된 묘사력과 화려한 색채,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개성 강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고 벽화 등 보여지는 기록에서는 서술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프리다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표현과 서술적이며 사실적인 묘사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마야족과는 또 다른 부족인 툴라의 톨테카족은 아즈텍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명으로, 벽화, 회화, 조각을 창안하고 용설란으로 만든 종이나 나무껍질에 흙을 파 나타낸 상형문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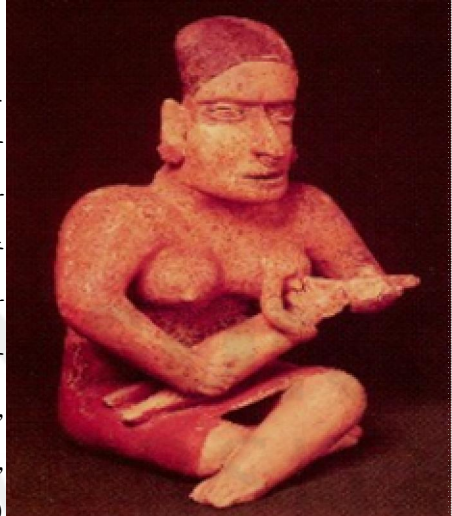
시조로, 장엄한 왕궁의 건축가이다. 톨테카족의 예술은 전쟁에서 의례를 강조하고 전사, 해골, 인간의 심장과 같은 모티브들로 이루어졌다. 13세기 아즈텍은 톨테카족의 문명을 계승하고 부족명을 멕시코(Mexicas)로 개명한 후 아즈텍 제국을 건설하였다. 아즈텍 문명은 마야와는 다르게 표현주의적이고 주제는 대부분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연결되었으며 특정한 의미를 담은 상징성이 뛰어나다. 이중적 종교관이나 인신공양 제식에 의한 죽음 예찬적 태도, 죽음에 관한 이미지들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

으며 프리다의 작품에서도 아즈텍 미술



<그림 16> 옥수수 신을 낳는 트라졸테오틸.

<http://blog.daum.net/wisdomhouse/18334889>



<그림 17> 대지의 여신

<http://www.fridakahlofans.com/c0190.html>

세 번째는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의 영향을 받은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프리다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총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차사고이고 그 두 번째는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프리다에게 남편의 영향력은 컸다. 멕시코 내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당시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벽화주의자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6~1974)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멕시코 미술을 멕시코 혁명의 이상을 반영할 수 있는 대중적 운동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방법을 궁리했고 국민 계몽의 방법으로 멕시코 벽화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네이버 미술캐스트, 디에고 리베라).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민족적 자긍심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교육부에서 디에고에게 벽화를 의뢰하였는데 프리다가 국립예비학교 재학시절 디에고가 학교의 벽화제작을 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프리다가 디에고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되며 둘 사이가 가까워지다 프리다가 21세가 되던 1928년 멕시코 공산주의 모임에 가입하며 그 모임에서 디에고를 다시 만났고 1년 후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디에고는 프리다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화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다져주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디에고를 만나기 전에 들었던 공산주의 청년 동맹에 가입을 했지만, 미술을 혁명의 도구로 여겼던 디에고에 의해 프리다는 공산주의와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디에고와 함께 여러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디에고가 공산당에서 제명당하고 미술학교에서도 해임이 되는 등 어려울 때 그 곁을 프리다가 함께 지켜 주었고 어디든지 동행했으며 이 무렵부터 멕시코 미술을 찬미하는 남편을 위해 복식부터 장신구, 머리모양까지 인디언 여인처럼 바꾸며 남편의 사고관이나 관심사에 집중했다. 프리다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열렬히 원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총 세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고 디에고의 수많은 외도와 여성편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고통은 배가 되었고 프리다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다.

디에고 리베라로 인한 사고의 변화는, 프리다가 디에고를 만나기 전의 초기 작품들과는 다른 작품의 변화를 가져 왔다. 디에고의 존재는 그녀가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를 다듬어 나가는 초기단계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했던 디에고로 인해 프리다는 당대의 화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혁명가들과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초현실주의의 창시자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과 그 외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주동자인 트로츠키(Leon Trotsky)와의 만남도 디에고를 통해서였다. 이외에도 프리다는 디에고를 통해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프리다는 디에고가 혁명적인 감각과 진실한 색채 감각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Ⅲ. 프리다 칼로의 작품의 회화적 특성

3.1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주제에 따른 특성 분석

모든 예술 작품에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담겨있는데 프리다는 생전에 다양한 특징을 갖는 약 200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죽기 전에 그린 몇 점의 정물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인이나 가족, 친구들을 그린 초상화이며 143점의 회화 중 55점이 자화상이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다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그녀의 자화상으로 많은 작품에서 보여지는 프리다의 모습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강한 열정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고통의 순간을 예술적으로 시각화 시켰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인물 사진의 형식이 프리다가 초상화나 자화상을 작업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 그녀의 그림은 형식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그녀가 겪고 있는 인생을 매번 그림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자사전적 경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프리다는 현실에서 감각이나 내성으로 얻은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하고 향

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연관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육체적 고통으로 프리다는 어렸을 때 당한 교통사고와 세 번의 유산, 불임,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술한 외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 삶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 프리다의 회화작품들은 고통의 순간을 예술적 미학의 시각화 된 것이다(최은경, 2007). 프리다는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내 그림들은 서두르지 않으며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그린 것들이다. 내 그림들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적어도 몇 사람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줄 거라 생각한다.... 그림이 내 삶을 완성했다. 나는 세 명의 아이를 잃었고, 내 끔찍한 삶을 채워줄 다른 것들도 많이 잃었다. 내 그림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다(르 클레지오, 신성림, 2002, p.172).”

어렸을 때 당한 교통사고로 걷기 위해 수차례의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 걸을 수는 있었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그녀를 평생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1940년대 말 이후 몇 차례의 척추수술과 오른쪽 다리의 절단으로 프리다는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하루의 대부분을 거의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부러진 척추><그림 8>은 이런 프리다의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반신은 갈라져있고 척추자리에는 이오니아식 기둥이 박혀있다. 하지만 이 기둥은 여기저기 부서지며 조각났고 프리다의 몸은 정형외과용 코르셋 장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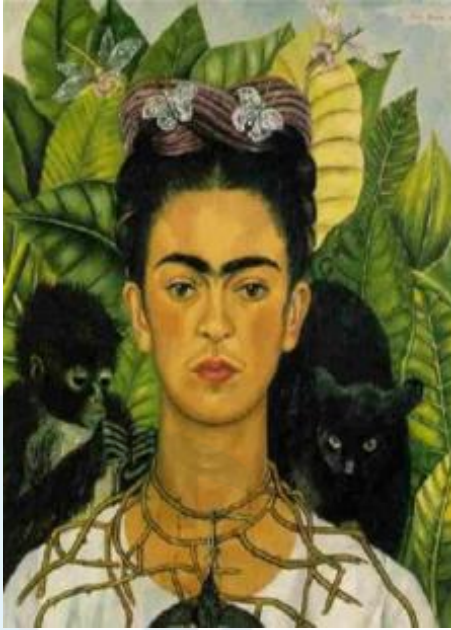


<그림 18> 프리다와 유산
(1932, 석판화, 32x32.5cm)



<그림 19> 헨리포드 병원
(1932, 금속판에 유채, 38x30.5cm)

지탱해주고 있다. 프리다의 온 몸에는 못이 박혀있어 그녀의 온 몸이 상처 투성이, 고통뿐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여타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슬피 우는 프리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희망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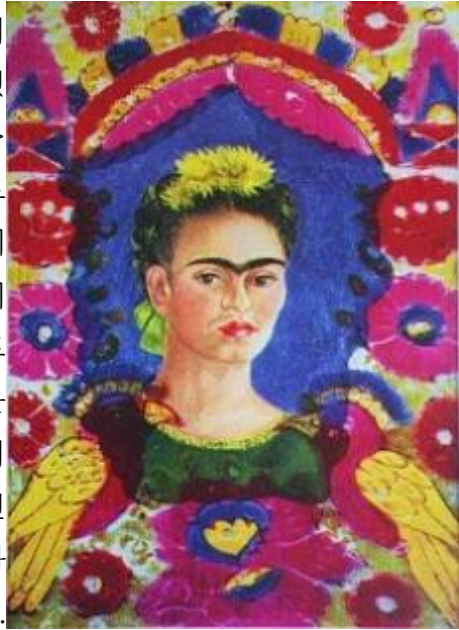
<그림 20>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1940, 캔버스에 유채, 63.5x49.5cm)

<작은 사슴> 등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프리다는 디에고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에 아이가 없음을 하나의 이유로 들어 끊임없이 아이를 갖기 원했다. 그러던 중 임신은 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녀의 몸상태 때문에 총 3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자화상 중 <헨리포드 병원><그림 18>, <프리다와 유산><그림 19>의 작품에서는 유산에 대한 기억을 강렬하고 끔찍한 이미지로 나타냈다. 이 작품에서 프리다의 몸은 줄 같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탯줄을 의미하며 그 줄로는 유산과 관련된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림 속의 프리다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과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프리다는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웠는데 원숭이, 앵무새 등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여러 작품에서 키웠던 애완동물들이나 인형으로 묘사되어 등장하고 있는데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그림 20>,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그림 21>, <원숭이가 있는 자화상>, <나와 앵무새>, <폴랑 창과 나>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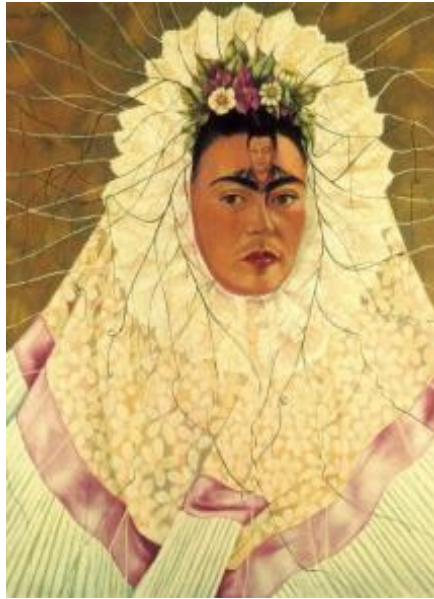
두 번째 주제는 사랑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들 수 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화상과 함께 서신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하는 사람 혹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로 하고는 했는데 <레온 트로츠키에 헌정하는 자화상>, <엘로사 박사에게 보낸 자화상>, 그녀의 첫 작품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그림 5> 역시 첫사랑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작가들이 그랬듯 유럽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았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이 그림은 자신을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게 자신을 표현하였다.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에게 완벽한 사랑이자 배우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랑이자 증오의 대상이었고, 연인이자 적이었다. 프리다와 디에고의 결혼

은 운명이고 필연적이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에고의 여성편력을 이유로 둘은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고에 대한 프리다의 애정 및 애착은 여러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 마음 속의 디에고> <그림 22>에서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묘사된 프리다의 눈길에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다. 이마에는 디에고의 초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오직 디에고만이 프리다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남편인 디에고는 여성편력이 심했는데 프리다와 결혼 후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아 프리다는 질투와 분노를 넘어선 고통과 고독, 상실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프리다에게 디에고는 온 인생을 걸쳐 하나가 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디에고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 역시 당연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친 프리다의 몸에는 출산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절망감으로 프리다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해졌다. 디에고의 술한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프리다는 이혼 이후 그런



<그림 22> 테우아나 차림의 자화상
(1943, 매소나이트에 유채, 76x61cm)

<그림 20>에는 프리다의 목부터 연결된 가시목걸이가 있는데 이는 예수의 고통을 상징한 가시 면류관을 연상시키며 프리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고 사랑에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별새는 죽어있는 체로 가시목걸이에 걸려있는데 이는 꺼져가는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의 여동생과의 불륜으로 인해 받은 충격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디에고가 좋아해서 입었던 멕시코 전통의상을 벗고 남성의 복장을 착용하여 <곱슬머리의 자화상>을 그렸고 이외에도 <추억 혹은 심장>, <단도로 몇 번 찢른 것뿐>, <기억> 등의 그림으로 남편 디에고에게 받은 고통을 전달했다. 이후 혁명가 트로츠키, 조각가 노구치, 사진가 니콜라스 머레이와 사랑에 빠졌고, 같은 동성과 사랑을 하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세 번째는 그녀의 삶을 들 수 있는데, 프리다는 작품을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의식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많은 작품에서 그림을 그렸을 당시 프



<그림 23> 아델리타, 판초비야 그리고 프리다
(1927, 캔버스에 유채, 65x45cm)

리다의 현실과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는데 1927년에 그린 <라 에델리타, 판초 비야 그리고 프리다><그림 23>은 그림 상단의 가운데 멕시코의 혁명가 판초 비야의 초상화 아래로 프리다가 중심을 차지하며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멕시코 협곡을 건너며 군인들을 호송하고 있는, 1920년 멕시코에서 유행했던 ‘Adelita’의 노래 내용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액자와 왼쪽에는 타일을 깔아 놓은 바닥의 건축구조물이 그려진 다른 액자가 그려져 있다. 그 아래에는 멕시코 혁명을 위해 카페에서 모여 회의를 하는 예술가들을 묘사하였는데 프리다는 국립예비학교 시절부터 문학이나 국가정책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 그림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그림 24>은 남편인 디에고와 함께 디트로이트로 동행을 하며 오랜 타향살이에 외로움을 느낀 프리다는 공사 중인 텅 빈 진열창에서 슬픔을 느꼈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한다. 이 그림이 그려진 1931년은 프리다가 멕시코 전통문화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한 시기로 아직 멕시코적인 특색이 두드러지진 않으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테라코

타로 된 사자와 말상을 그려 넣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림 24>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
(1931, 금속판 위에 유채, 30.3x38.2cm)

프리다는 어렸을 때의 교통사고 이후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남편인 디에고의 권유로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는 연작을 그리게 되었다. 그림의 대부분이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주로 자화상으로 남겨졌고 <그림 12>의 자신의 출생의 순간을 상상한 그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가로 입문하였다. 사고 이후 병원에 누워 첫사랑에게 쓴 편지에서 “밤새도록 죽음이 내 침대 주위를 돌며 춤추고 있다(방상훈, 이창섭, 2015).”고 한 것처럼 프리다의 삶에는 항상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로 자신의 개인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많은 자화상으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라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꽃바구니><그림 25>는 미국의 여배우이자 남편 디에고의 애인이었던 폴레트 고다드(Paulette Goddard)를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그림의 구성과 스타일은 프리다가 존경하는 19세기 화가 메르세데스 자모의 영향을 받았다. 이 그림은 단순한 꽃바구니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개방적인 마인드와 폴레트와의 친밀함을 상징한다.

작품을 시기별로 따져볼 때 화가로의 입문기로 1907~1932년, 초현실주의기로 1933~1938년, 회화의 절정기로 1939~1949년, 정물화로의 전환기

1950~1954년으로 나눌 수 있다(오은경, 2011).



<그림 25> 꽃바구니
(1941, 동판 위에 유채, 64.1cm)

3.2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프리다 칼로는 전문적으로 미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표현했다. 특정한 형태와 물체, 그리고 색채의 상징을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각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상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프리다의 작품은 그림에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모티브를 단순화하거나 기호화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열거하였다. 멕시코 전통 미술인 아즈텍 시기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 그림 안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상징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듯이 그려내어 그림 속에 표현한 갖가지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한 것이다. <그림 22>는 자신의 이마에 디에고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주인공의 강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거미줄 같은 선들과 연결되어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마치 방 어막 같은 것으로 소유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5>는 아직 작가의 작품세계가 확실히 적립되기 전의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가녀리고 긴 목과 긴 손가락,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청초, 우아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으며 이는 모델리아니의 <푸른 눈의 여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덤덤하지만 사랑을 갈구하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바다 건너의 연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배경으로는 바다의 풍랑과 물결표시가 주되게 표현되었다. 어두운 색으로 표현된 바다는 작가의 사고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만 같은 작가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 23>은 액자 속의 그림들과 카페 안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 혁명의 노래를 그린 그림과 멕시코 혁명가의 초상화, 불안정한 면으로 이루어진 건물들 그 아래로는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자신과 사람들. 액자로 미루어 볼 때 불안정한 정서와 멕시코 혁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는 미국에 거주 당시 그린 작품으로 미국의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색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진열된 장식물들은 멕시코에서 수집한 자신의 장식물들을 배치함으로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에 담고 있다. 이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들을 나열하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고 작가의 자화상 등으로 그림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알 수 있다(백미경, 2008). 그림에 원숭이, 고양이, 앵무새 등의 동물을 그림에 등장시켰는데 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박함과 모성애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고 멕시코 전통예술에 있어 동물은 인간의 본능과 원시적인 성질을 상징한다. <그림 20>은 원숭이와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가시목걸이에는 죽은 벌새가 달려있다. 원숭이는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원시성과 야만성을 암시하며 성적 본능의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프리다는 아이를 못 키우는 슬픔을 자신의 애완 동물들로 달래었다. <그림 21>은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은 자신을 밝은 색채와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독특하게 표현해냈다. 이 그림에서는 앵무새를 등장시켰는데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앵무새는 묘한 안정감을 주고 모방과 슬기롭지 못한 반복을 뜻한다. 힌두교적 의미로 사랑의 신 카마가 타고 다니는

앵무새는 애욕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림 26>은 평소에 즐겨 입던 화려한 옷차림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악세사리도 하지 않았다.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린 작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우울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으로 대신하고 배경으로 나뭇잎을 채워 넣었는데 나뭇잎이 그대로의 색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상한 나뭇잎도 있고 낙조의 색인 밤색으로도 표현되어 있어 슬픔이나 낙엽을 나타내며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다. 삶과 죽음,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애완조 보니토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다(신혜순, 2007). <그림 25>는 디에고와 헤어진 후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전 남편의 애인을 위해 그린 그림이다. 꽃바구니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꽃 위로 프리다 칼로를 상징하는 벌새와 전남편을 상징하는 꿀벌, 전 남편의 애인을 상징하는 파란 나비를 볼 수 있다. 꽃을 매개체로 하여 꽃이 없이 살 수 없는 나비와 벌, 곤충과는 다른 생물인 벌새를 자신으로 표현하여 그들 사이에 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보니토와 함께 있는 자화상
(1941, 캔버스에 유채, 55x43.4cm)

구 분	상징적 의미	사 례
멕시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전통 의상이나 악세사리, 소품, 장식물 등이 자주 등장. - 작가의 건강이 악화 될수록 옷장식이 더욱 화려해짐. - 멕시코 전통소재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 	
동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숭이, 고양이, 앵무새 등의 동물이 등장. -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작가의 모성애를 표현. - 다른 의미로 동물은 인간의 원시적, 본능적 성질을 상징. 	
신체 (자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림을 그림. - 고통 받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예술로 승화시킴. - 자화상의 분위기만으로 당시 작가의 상황을 알 수 있음. 	
자연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 나뭇잎, 곤충 등을 모티브로 사용. - 단순화 하거나 기호화 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 - 성적인 형상들의 상징과 더불어 배경에 꽂차있는 꽃과 나뭇잎들은 작가의 공허함을 표현.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 도표

<표 1> 프리다 칼로 회화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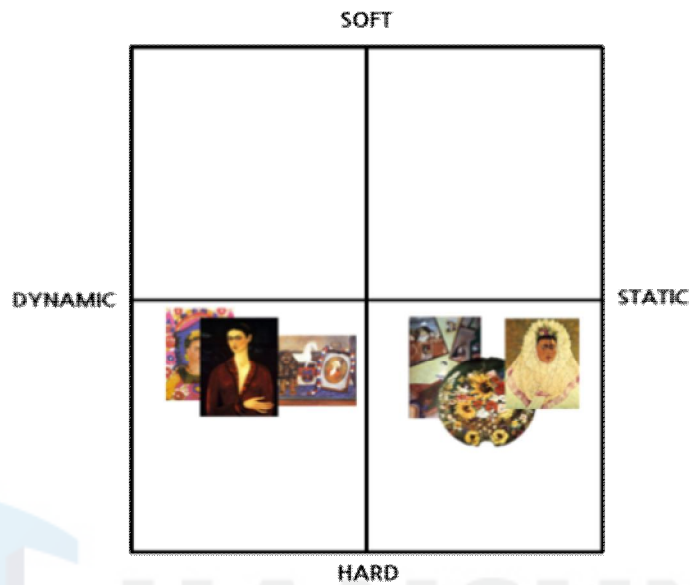
3.3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색채적 특성 분석

프리다 칼로의 초기 작품은 유럽적인 화풍과 색채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의 색채들이 멕시코적 색채로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육체,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지며 그림에서 강한 색감으로 표현되게 되었다. 1940년 이후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프리다가 색채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다 칼로가 선택한 사용한 색채(대지의 색, 올리브색, 빨강과 노란계열의 난색)은 멕시코 대중 미술의 색채조합은 물론 원시주의적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프리다의 그림은 형태의 윤곽을 표현하는데 있어 검은색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화려할 때가 많다. 색채에는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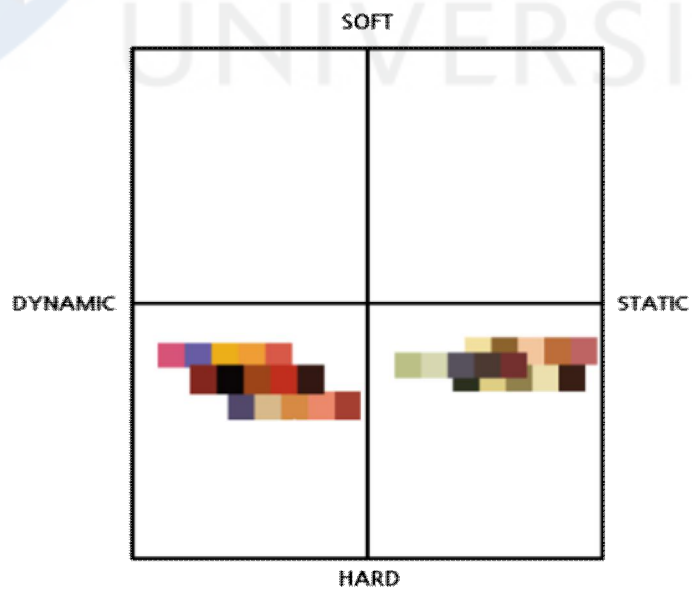
1940년 중반에 쓰여진 프리다 칼로의 일기에는 산문시의 형식을 빌려 색채들의 의미를 언급하였다. 먼저 녹색은 기분 좋은 빛의 색으로 표현했고 붉은 자주색은 가장 날 것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것의 색으로, 갈색은 낙엽과 땅의 색으로, 노란색은 광기, 질병, 공포, 태양과 기쁨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색으로 서술하였다. 검정색은 아무 것도 없는 색으로 표현했고, 암청색은 사랑과 순수, 전류의 색으로, 초록색은 슬픔, 나뭇잎, 독일 전체의 색이고 서술했으며, 연두색은 정도가 심한 광기와 신비, 유럽의 색이고 진한 녹색은 흥조와 길조의 색으로 진한 남색은 거리감, 다정다감한 색으로 표현했고 자홍색은 피의 색으로 알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신혜순, 2007) (백미경, 2009).

특징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채의 사용에 의미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1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그림 27> 본 연구자가 분석한 프리다 칼로 회화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그림 28> 본 연구자가 분석한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배색컬러 이미지 스케일

<그림 27 ~ 28>는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의 이미지 스케일이다. <그림 27>은 작품들을 배치하였을 때 나타나는 양상으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부드러운(soft)쪽 보다는 딱딱한(Hard)쪽에 모든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적인(Dynamic)쪽과 정적인(Static)쪽으로 작품들의 절반씩 위치해 동적인 느낌과 정적인 느낌 둘 다 주고 있다. 각각의 작품에서는 은은하고 내추럴함과 더불어 모던하고 지나치지 않은 화려함을 이미지 스케일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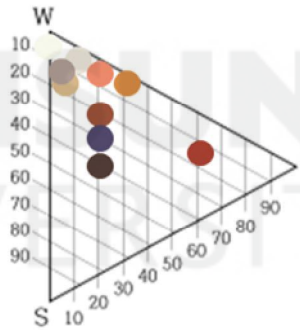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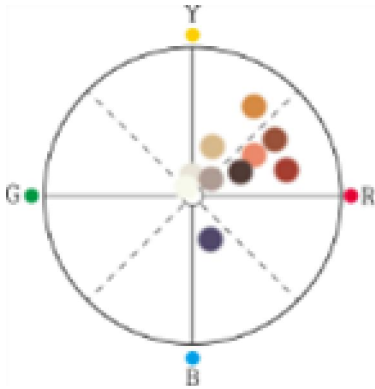
<그림 28>은 프리다 칼로 회화작품에 쓰인 색채들을 추출하여 컬러배색으로 표현하여 위치 시켰을 때의 이미지로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3.3.2 NCS를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다음은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기 앞서 작가의 응용작품을 채택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색채특성을 파악하며 응용하기 위해 Natural Color System 표색계를 이용하여 각 작품을 육안 측색하였고, NCS 컬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구하였다. <표 2> ~ <표 7>은 본연구자가 프리다 칼로의 회화작품에서 볼 수 있는 색상 값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 NCS 색채 분석

작품 1	Display Window in a Street in Detroit(1931)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div> <div>S 0510-Y05R</div> <div>S 0300-N</div> <div>S 4020-Y60R</div> <div>S 3020-Y60R</div> <div>S 0515-Y50R</div> <div>S 3020-R65B</div> <div>S 0515-Y35R</div> <div>S 0530-Y40R</div> <div>S 0520-Y60R</div> <div>S 2560-Y80R</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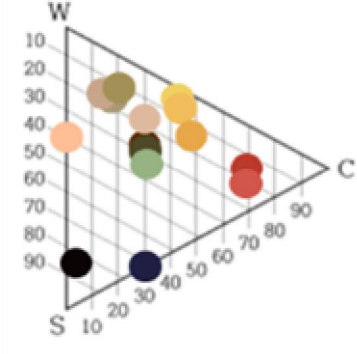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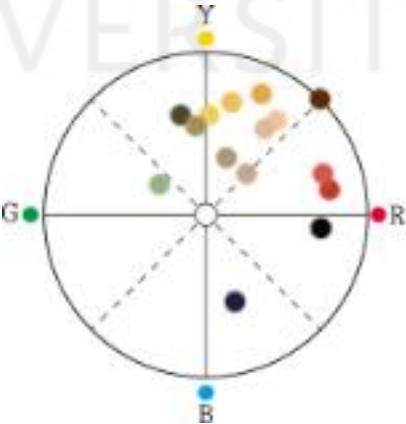
<표2~7>는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NCS 색채분석 도표

<표 2>의 회화 작품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에서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 0510-Y05R, S 0300-N, S 4020-Y60R, S 3020-Y60R, S 0515-Y50R, S 3020-R65B, S 0515-Y35R, S 0530-Y40R, S 0530-Y40R, S 0520-Y60R, S 2560-Y80R 으로 나타났다.

S 0510-Y50R은 5%의高明도와 1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5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20-Y60R은 40%의중명도와 2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6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3020-Y60R은 30%의중명도와 2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6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15-Y50R은 5%의高明도와 15%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5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3020-R65B은 30%의중명도와 2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파랑(B)이 6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0515-Y35R은 5%의高明도와 15%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3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30-Y40R은 5%의高明도와 30%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4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30-Y40R은 5%의高明도와 3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4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20-Y60R은 5%의高明도와 2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6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2560-Y80R은 25%의중명도와 60%의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8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300-N의 흰색을 사용하였다.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은 주로高明도와저채도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노란에서 빨간 계열의 색채가 쓰여 편안하고 안정되며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며, 반대되는 파란색의 쓰임으로 강렬한 느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표 3> ‘꽃바구니’ NCS 색채 분석

작품 2	Flower Basket (1941) (꽃바구니)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p> S 0540-Y S 1520-G95Y S 2570-Y80R S 0545-Y20R S 3030-G90Y S 0040-Y40R S 3030-Y50R S 1015-Y50R S 7030-R90B S 1570-Y85R S 1545-Y35R S 3530-G80Y S 8505-R05B S 1520-G90Y S 2030-Y40R </p>	

<표 3>의 회화작품 ‘꽃바구니’에서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0540-Y, S 0545-Y20R, S 3030-Y50R, S 1570-Y85R, S8505-R05B, S 1520-R95Y, S 3030-G90Y, S 1015-Y50R, S 1545-Y35R, S 1520-G90Y, S 2570-Y80R, S 0540-Y40R, S 7030-R90B, S 3530-G80Y, S 2030-Y40R 으로 나타났다.

S 0540-Y은 5%의高明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의 노란색을 사용하였다.

S 0545-Y20R은 5%의高明도와 4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2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3030-Y50R은 30%의 중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5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570-Y85R은 15%의高明도와 7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8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8505-R05B은 85%의 저명도와 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파랑(B)이 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1520-G95Y은 15%의高明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노란(Y)이 9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3030-G90Y은 30%의 중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노란(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1015-Y50R은 10%의高明도와 1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5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545-Y35R은 15%의高明도와 4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3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520-G90Y은 15%의高明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노란(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2570-Y80R은 25%의高明도와 7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8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40-Y40R은 5%의 고채도와 4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으로 빨간(R)이 40% 가미된 노란(R)색을 사용하였다.

S 7030-R90B은 70%의 저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파랑(B)이 90%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3530-G80Y은 35%의 중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란(Y)이 8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2030-Y40R은 20%의 고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4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빨간과 노란 계열의 난색 색상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명도와 채도는 골고루 분포되어 마치 다양한 색을 사용한 느낌을 주어 그림에 화려함을 부여하였다.



<표 4> ‘라 아델리타, 판초 비야 그리고 프리다’ NCS 색채 분석

작품 3	The Adelita, Pancho Villa and Frida(1927) (라 아델리타, 판초 비야 그리고 프리다)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div><div>S 6525-R90B</div><div>S 7030-R40B</div><div>S 1030-G50Y</div><div>S 1015-B45G</div><div>S 8020-B65G</div><div>S 0525-G45Y</div><div>S 1015-Y40R</div><div>S 1015-G65Y</div><div>S 0540-Y55R</div><div>S 1020-B05G</div><div>S 7030-Y55R</div><div>S 3055-Y75R</div><div>S 3055-Y35R</div><div>S 5545-Y85R</div><div>S 7010-R55B</div></div>		

<표 4>의 회화작품 ‘라 아텔리타, 판초 비야 그리고 프리다’에서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 6525-R90B, S 1015-B45G, S 1015-Y40R, S 1020-B05G, S 3055-Y35R, S 7030-R40B, S 8020-B65G, S 1015-G65Y, S 7030-Y55R, S 5545-Y85R, S 1030-G50Y, S 0525-G45Y, S 0540-Y55R, S 3055-Y75R, S 7010-R55B으로 나타났다.

S 6525-R90B은 65%의 저명도와 2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파랑(B)이 90%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1015-B45G은 10%의高明도와 1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초록(G)이 45% 가미된 파랑(B)색을 사용하였다.

S 1015-Y40R은 10%의高明도와 1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4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020-B05G은 10%의高明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초록(G)이 5% 가미된 파랑(B)색을 사용하였다.

S 3055-Y35R은 30%의 중명도와 5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3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7030-R40B은 70%의 저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파랑(B)이 40%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8020-B65G은 30%의 중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초록(G)이 가미된 파랑(B)색을 사용하였다.

S 1015-G65Y은 10%의高明도와 1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란(Y)이 6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7030-Y55R은 70%의 저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5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5545-Y85R은 55%의 중명도와 4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8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030-G50Y은 10%의高明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란(Y)이 5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0525-G45Y은 5%의高明도와 2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란(Y)이 4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0540-Y55R은 5%의高明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5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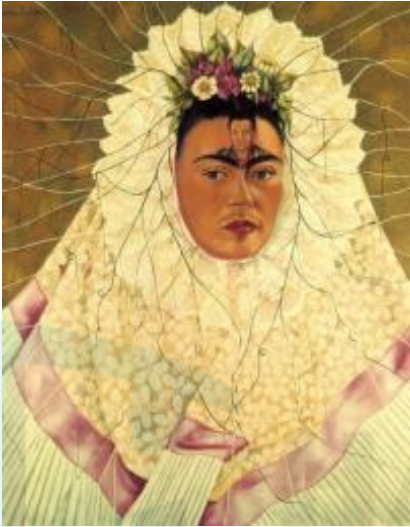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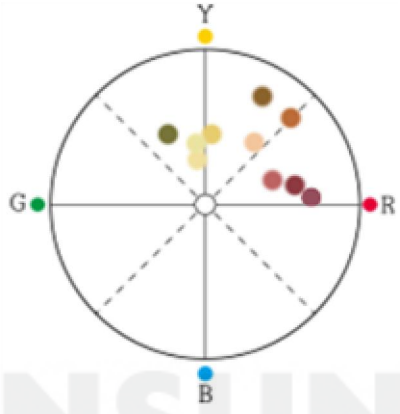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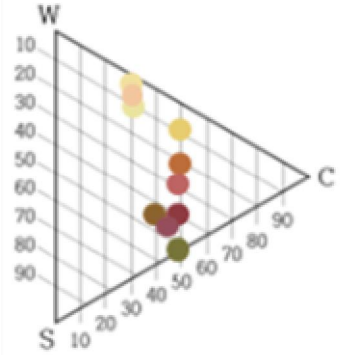

S 3055-Y75R은 30%의 중명도와 5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빨간(R)이 7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7010-R55B은 70%의 저명도와 1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파랑(B)이 70%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파랑, 빨간, 노란, 초록계열의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였으나 낮은 채도와 명도를 사용하여 안정된 색감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정돈된 느낌을 준다.



<표 5> ‘내 마음 속의 디에고’ NCS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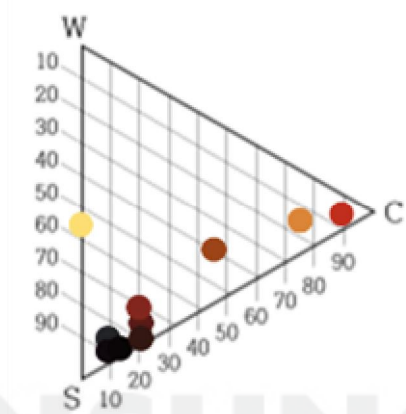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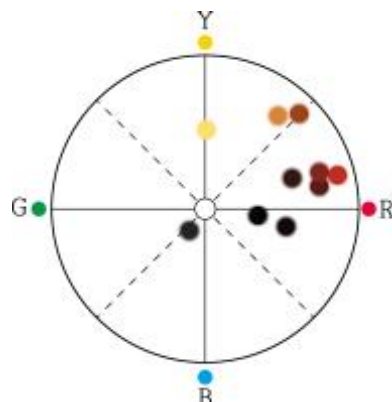
작품 4	Deogo on My mind(내 마음 속의 디에고)(1943) (테우아나 차림의 자화상)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div> <div>S 0530-G90Y</div> <div>S 4050-Y90R</div> <div>S 1050-Y05R</div> <div>S 5050-G70Y</div> <div>S 1030-G95Y</div> </div> <div> <div>S 4540-Y30R</div> <div>S 0530-Y45R</div> <div>S 2050-Y50R</div> <div>S 2550-Y70R</div> <div>S 4545-Y80R</div> </div>		
		

<표 5>의 회화작품 ‘내 마음 속의 디에고’에서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 0530-G90Y, S 4050-Y90R, S 1050-Y05R, S 5050-G70Y, S 1030-G95Y, S 4540-Y30R, S 0530-Y45R, S 2050-Y50R, S 2550-Y70R, S 4545-Y80R으로 나타났다.

S 0530-G90Y은 5%의高明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노란(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4050-Y90R은 40%의 중명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9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050-Y05R은 10%의高明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5050-G70Y은 50%의 중명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노란(Y)이 7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1030-G95Y은 10%의高明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노란(Y)이 9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4540-Y30R은 45%의 중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30% 가미되어 있는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0530-Y45R은 5%의高明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4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2050-Y50R은 20%의高明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5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2550-Y70R은 25%의高明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7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545-Y80R은 45%의 중명도와 4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補色로 빨간(R)이 8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주로 노란과 초록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고 高明도와 중채도의 은은한 색감으로 고상한 이미지가 연출되었고 섬세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을 준다.

<표 6>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NCS 색채 분석

작품 5	Self Portrait in a Velvet Dress(1926)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div> <div>● S 8510-B45G</div> <div>● S 7020-Y80R</div> <div>● S 0555-Y</div> <div>● S 9010-R10B</div> <div>● S 1575-Y45R</div> <div>● S 4045-Y50R</div> <div>● S 9010-R05B</div> <div>● S 0590-Y85R</div> <div>● S 7520-Y90R</div> <div>● S 8020-Y75R</div> </div>		

<표 6>의 회화작품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에서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 8510-B45G, S 0555-Y, S 1575-Y45R, S 9010-R05B, S 7520-Y90R, S 7020-Y80R, S 9010-R10B, S 4045-Y50R, S 0590-Y85R, S 8020-Y75R로 나타났다.

S 8510-B45G은 85%의 저명도와 1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45%의 초록(G)이 가미된 파랑(B)색을 사용하였다. S 0555-Y은 5%의 고명도와 5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의 노란색이 사용되었다. S 1575-Y45R은 15%의 저명도와 7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45%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9010-R05B은 90%의 저명도와 1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5%의 파랑(B)색이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7520-Y90R은 75%의 저명도와 2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90%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7020-Y80R은 70%의 저명도와 2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80%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9010-R10B은 90%의 저명도와 1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10%의 파랑(B)이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4045-Y50R은 40%의 중명도와 45%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50%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이 사용되었다. S 0590-Y85R은 5%의 고명도와 9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85%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이 사용되었다. S 8020-Y75R은 80%의 저명도와 20%의 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75%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난색을 응용한 무채색 계열의 색이 주를 이뤄 어둡고 가라앉은 이미지이며 자화상의 주체인 작가의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밝게 주목성을 주고 있다.

<표 7> 'Self Portrait The Frame' NCS 색채 분석

작품 6	Self Portrait The Frame(1938)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팔레트	NCS 색채분포	
		
<div> ● S 1565-R05B ● S 6530-R20B </div> <div> ● S 3045-R85B ● S 1555-Y45R </div> <div> ● S 1090-Y20R ● S 4545-R95B </div> <div> ● S 1080-Y35R ● S 6530-Y20R </div> <div> ● S 2070-Y70R ● S 7520-Y40R </div>		

<표 7>의 회화작품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에 나타난 색 값을 보면 S 1565-R05B, S 3045-R85B, S 1090-Y20R, S 1080-Y35R, S 2070-Y70R, S 6530-R20B, S 1555-Y45R, S 4545-R95B, S 6530-Y20R, S 7520-Y40R로 나타났다.

S 1565-R05B은 15%의高明도와 65%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5%의파랑(B)이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3045-R85B은 30%의중명도와 45%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85%의파랑(B)이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1090-Y20R은 10%의高明도와 9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빨간(R)이 2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1080-Y35R은 10%의高明도와 8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35%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2070-Y70R은 20%의高明도와 70%의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70%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6530-R20B은 65%의중명도와 30%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20%의파랑(B)가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1555-Y45R은 15%의高明도와 55%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45%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545-R95B은 45%의중명도와 45%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95%의파랑(B)이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6530-Y20R은 65%의저명도와 30%의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20%의 빨간(R)이 포함되어 있는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7520-Y40R은 75%의저명도와 20%의고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뉘앙스로 40%의 빨간(R)이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빨간과 노란 계열의 난색을 많이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며,高明도와 고채도가 사용되어 원색적이며 다채롭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IV.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4.1 작품 제작의도 및 제작방법

20세기 초 초현실주의와 페미니즘의 작가 중 대표적인 여성화가인 프리다 칼로. 기구한 삶을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표현해낸 그녀의 작품을 아트마스크 디자인의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작가의 작품 중 비교적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색감의 초기의 자화상을 2작품, 멕시코적인 색채성이 짙은 중기의 자화상을 2작품, 정물화 2작품을 선정하여 색채와 조형적 요소들을 분석하였고 프리다 칼로 회화 속에서 나타나는 작가 고유의 색채와 자화상 속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모습, 식물과 동물 등을 모티브로 재구성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아트마스크는 아크릴물감을 이용한 핸드 페인팅을 기본 작업으로 하고 글리터, 스와로브스키, 깃털, 자개 등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총 6개의 아트마스크 작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4.2 프리다 칼로의 회화작품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제안

4.2.1 작품 I 금발의 여인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깃털, 우드보드, 글루

작품 설명 :

프리다 칼로의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 작품은 진열창 앞쪽으로 전면 배치된 장식품들과는 별개로 뒤쪽은 텅 비어 매우 쓸쓸한 느낌을 준다. 사실 배치된 사자상이나 뒤쪽의 말상은 실제로는 진열되지 않은, 작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서 본인이 수집한 수집품을 그려 넣은 것이다.

그림 속의 사자상을 모티브로 사자상을 여성으로, 사자의 갈기를 금발의 머리카락이라고 상상하며 여인의 모습을 아트마스크로 제작하였다. 마스크의 반쪽은 사자의 갈기에서 따온 헤어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마스크의 반은 여성의 얼굴로 눈 주위는 우울함이나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깃털을 붙여 입체감을 주고 양쪽 다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3020-G90Y, S 6020-Y20R, S 6505-G95Y, S 6025-Y45R, S 6520-G10Y, S 2070-B10G, S 7010-R85B, S 9000-N으로 나타났다.

S 3020-G90Y는 30%의 증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6020-Y20R는 60%의 저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20% 가미된 노란(Y)색이다.

S 6505-G95Y는 65%의 증명도와 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9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6025-Y45R는 60%의 증명도와 2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4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6520-G10Y는 65%의 저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

스이며 노랑(Y)이 1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2070-B10G는 20%의高明도와 7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초록(G)이 1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7010-R85B는 70%의 중명도와 1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파랑(B)이 8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9000-N의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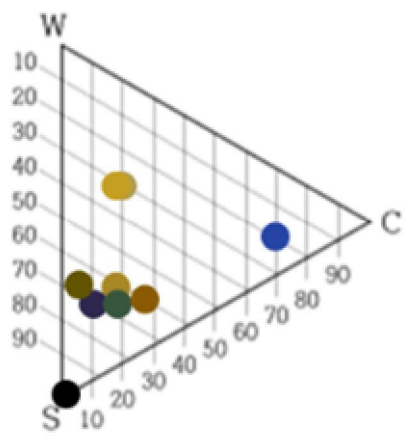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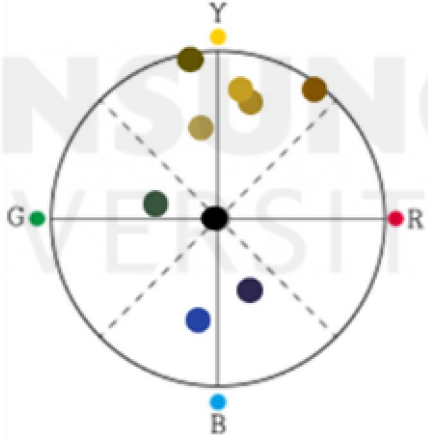

<표 8> 작품 I 금발의 여인 디자인 시안

<p>모티브 작품</p>	 <p>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p>	
<p>디자인 제안</p>	 <p>일러스트</p>	 <p>응용모티브</p>
<p>제안색채</p>		

<표 9> 작품 I 금발의 여인 마스크 디자인

마 스 크 디 자 인		
	금발의 여자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10> 작품 ‘금발의 여인’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3020-Y15R S 6020-Y20R S 6025-Y45R S 2070-B10G S 9000-N S 3020-G90Y S 6505-G95Y S 6520-G10Y S 7010-R85B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금발의 여인’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4.2.2 작품 II 꽃의 노래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망사, 글루, 스펅글, 스펀지, 우드보드, 레이스 테이프

작품설명 :

‘꽃의 노래(작품 II)’는 프리다 칼로의 회화 작품 중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다. 강한 색감과 마치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 작가의 자화상은 여태껏 그렸던 자신의 자화상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밝고 화려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사계절 중에서 꽃이 피어나는 봄 같은 느낌의 색채와 프레임 안에 주인공과 프레임 밖의 꽃, 새를 모티브로 마스크에 꽃이 피어나는 느낌을 표현한다. 마스크 하단에는 꽃이 피어있고 그 꽃의 향기가 나는 느낌을 스펅글을 붙여 입체감 있게 보여주고 그림에서의 머리 장식을 꽃 포장지를 이용하여 마스크 상단에 볼륨감 있게 표현하였다. 파스텔 톤의 아크릴 물감을 스펀지를 이용하여 우드보드에 찍어내듯 질감을 나타내고 꽃이 잔뜩 피어있는 꽃밭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림의 프레임처럼 레이스 모양의 테이프를 테두리에 붙여 프레임 느낌이 나게 배경으로 사용한다.

배경을 상이하게 하면 작품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화작품에 쓰인 색을 중심으로 배경을 달리하여 4개의 예시를 제작한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1040-G95Y, S 0540-Y45R, S 4010-Y60R, S 4030-Y10R, S 4040-G60Y, S 5040-R05B, S 4040-R85B, S0300-N이 나타났다.

S 1040-G95Y는 10%의 높은 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란(Y)이 9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0540-Y45R은 5%의 높은 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빨간(R)이 4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10-Y60R은 40%의 중명도와 10%의 높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양스이며 빨간(R)이 6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30-Y10R은 40%의 증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양스이며 빨간(R)이 1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40-G60Y는 40%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양스로 노란(Y)이 6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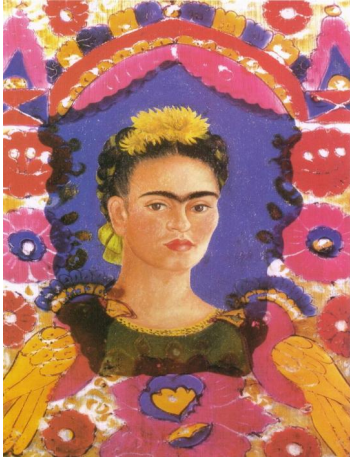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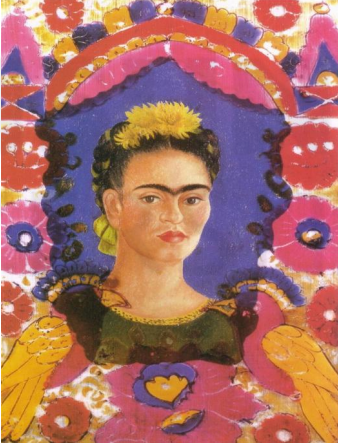

S 5040-R05B는 50%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양스이며 파랑(B)이 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4040-R85B는 40%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양스이며 파랑(B)이 8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0300-N의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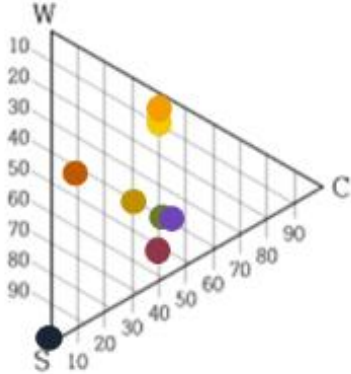


<표 11> 작품 II 꽃의 노래 디자인 시안

<p>모티브 작품</p>		
	<p>프레임이 있는 자화상</p>	
<p>디자인 제안</p>		
	<p>일러스트</p>	<p>응용모티브</p>
<p>제안색채</p>		

<표 12> 작품 II 꽃의 노래의 마스크 디자인





마 스 크 디 자 인		
	꽃의 노래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13> 작품 ‘꽃의 노래’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1040-G95Y S 0540-Y45R S 4010-Y60R S 4030-Y10R S 4040-G60Y S 5040-R05B S 4040-R85B S 0300-N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꽃의 노래’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표 14> 작품 꽃의 노래 마스크 디자인 변형

	
<p>마스크 디자인</p>	<p>디자인 변형 1</p>
	
<p>디자인 변형 2</p>	<p>디자인 변형 3</p>

<표 13>은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을 응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한 ‘꽃의 노래’의 배경을 세 가지 색으로 변형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마스크 디자인의 원형의 배경은 마스크에서 주되게 사용된 S 1040-G95Y와 S 4040-R85B으로 노란색과 보색인 보라색을 대비되게 사용하여 마스크 디자

인이 두드러져 보이게 나타내었고 ‘디자인 변형 1’은 마스크에서 사용된 S 1040-G95Y과 동일한 노란색을 사용하여 마스크와 통일감을 주면서 안정감 있고 난색계열의 사용으로 따뜻하고 산뜻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디자인 변형 2’는 마스크에서 주되게 사용된 S 1040-G95Y을 보색인 보라색을 톤다운하여 안정감 있지만 마스크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디자인 변형 3’은 마스크에서 사용된 S 5040-R05B를 명도를 높여 사용하였다. 명도를 높인 색의 사용으로 앞의 세 가지 마스크 디자인보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4.2.3 작품 III 회상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우드보드

작품 설명 :

‘회상(작품Ⅲ)’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라 아텔리타, 판초비야 그리고 프리다’에서 색채와 직선과 면을 모티브로 응용한다. 작가의 초기 회화작품으로 기본으로 낮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은은하고 편안한 느낌의 색감과 액자 속에 표현된 기하학적 건물을 모티브로 차용하였다.

메이크업 마스크에 아크릴 물감을 두텁게 올려주어 볼륨감을 주었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구불한 느낌을 채색하며 표현하였다. 배경에는 액자 속의 면과 직선을 사용하여 아트마스크의 불안정하고 구불한 느낌과는 반대되는 느낌을 주었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0300-N, S 2050-Y45R, S 4020-G40Y, S 8010-G90Y, S 4030-Y70R, S 4040-B60G, S 7020-B90G, S 8005-G85Y, S 9000-N으로 나타났다.

S 0300-N의 흰색을 사용하였다.

S 2050-Y45R은 20%의 높은 명도와 5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빨간(R)이 4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20-G40Y는 40%의 중명도와 2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란(Y)이 4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8010-G90Y는 80%의 낮은 명도와 1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란(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4030-Y70R은 40%의 중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빨간(R)이 7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4040-B60G는 40%의 중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초록(G)이 6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7020-B90G는 70%의 낮은 명도와 2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

의 뉘앙스이며 초록(G)이 9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8005-G85Y는 80%의 낮은 명도와 5%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8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9000-N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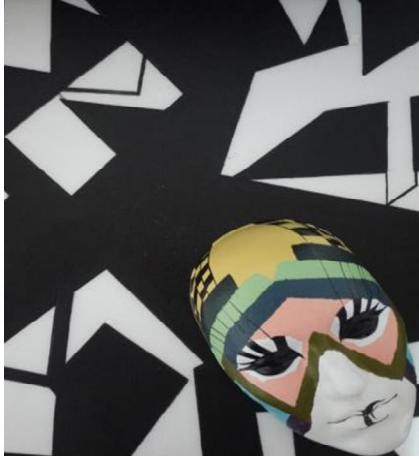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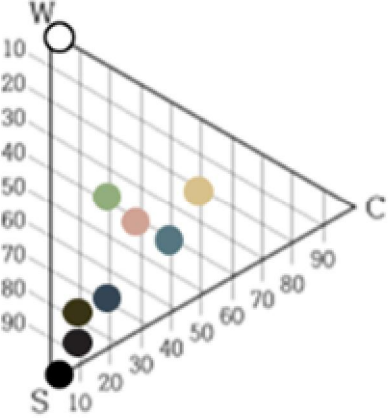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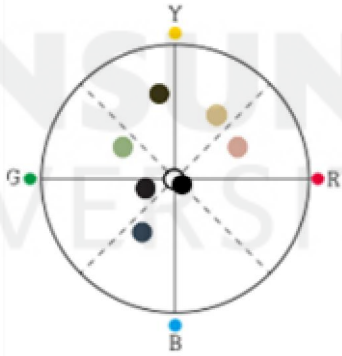

<표 15> 작품Ⅲ 회상 디자인 시안

<p>모티브 작품</p>		
	<p>라 아텔리타, 판초비야 그리고 프리다(1927)</p>	
<p>디자인 제안</p>		
	<p>일러스트</p>	<p>응용모티브</p>
<p>제안색채</p>		

<표 16> 작품 III 회상의 마스크 디자인

마 스 크 디 자 인		
	회상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17> 작품 ‘회상’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p>○ S 0300-N</p> <p>● S 2050-Y45R</p> <p>● S 4020-G40Y</p> <p>● S 8010-G90Y</p> <p>● S 4030-Y70R</p> <p>● S 4040-B60G</p> <p>● S 7020-B90G</p> <p>● S 8005-G85Y</p> <p>● S 9000-N</p>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회상’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4.2.4 작품 IV : 오로라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우드보드, 큐빅, 비즈

작품 설명 :

‘오로라(작품Ⅳ)’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내 마음 속의 디에고’ 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다. 멕시코 전통 복장인 테우아나 차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그녀의 강박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이마에 디에고를 그렸다.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 서로 교감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안에 디에고와 프리다 두 사람을 함께 표현하였다.

마스크의 반은 얼굴의 윤곽을 그리고 비즈를 붙여 디에고 리베라를 상징하였고 다른 반쪽은 프리다 칼로의 상징인 눈썹을 큐빅을 글루로 붙여 볼륨감과 상징성을 나타냈다. 아크릴 물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의 행복한 느낌을 색채로 표현하여 채색하였으며 그 위에 글리터를 뿌려 화려한 느낌을 더하였다. 배경은 그림과 동일하게 거미줄을 그려 함께 결속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다.

배경을 상이하게 하면 작품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경을 달리하여 1개의 예시를 제작한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1030-B10G, S 4030-G45Y, S 7010-G80Y, S 9000-N, S 4040-B50R, S 2040-Y05R, S 7020-Y15R, S 8010-Y40R으로 나타났다.

S 1030-B10G는 10%의 높은 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초록(G)이 1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4030-G45Y는 40%의 증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노랑(Y)이 4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7010-G80Y는 70%의 낮은 명도와 10%의 높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노랑(Y)이 8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4040-B50R는 40%의 증명도와 1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빨강(R)이 5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2040-Y05R은 20%의高明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빨강(R)이 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7020-Y15R는 70%의 낮은 명도와 2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빨강(R)이 15%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8010-Y40R,는 80%의 낮은 명도와 1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로 빨강(R)이 40% 가미된 노란(Y)색을 사용하였다.

S 9000-N의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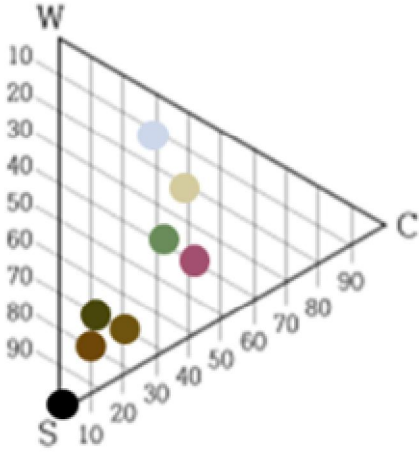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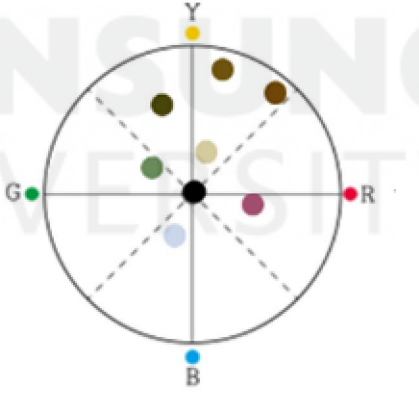

<표 18> 작품Ⅳ 오로라 디자인 시안

모티브 작품			
	내 마음 속의 디에고(1943)		
디자인 제안			
	일러스트	응용모티브	
제안색채			

<표 19> 작품Ⅳ 오로라 마스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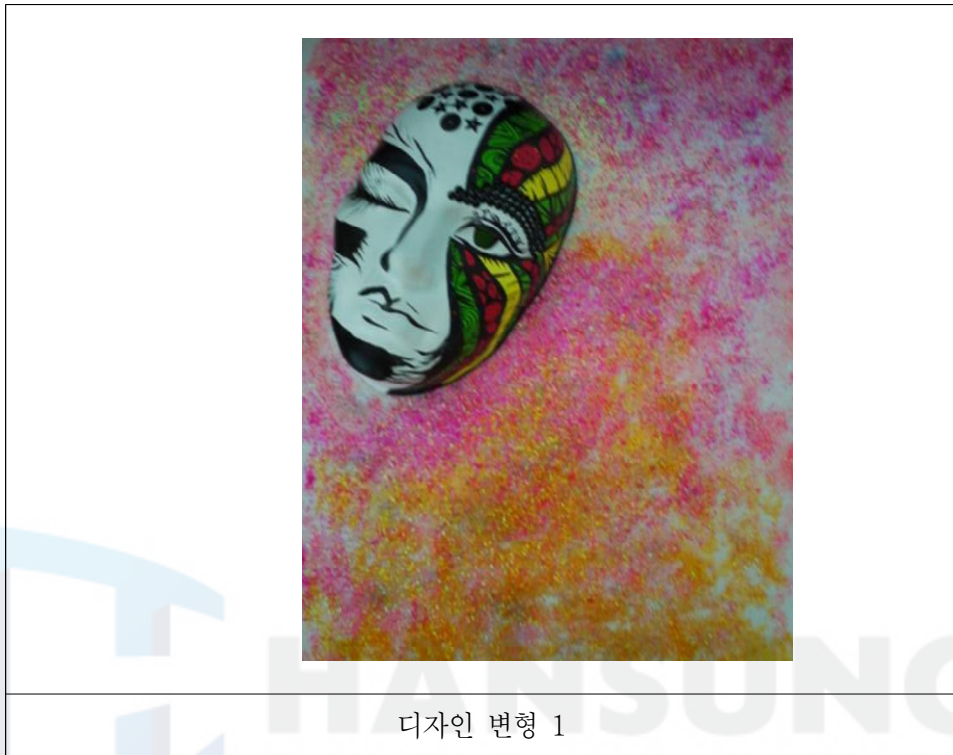
마 스 크 디 자 인		
	오로라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20> 작품 ‘오로라’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p>S 1030-B10G</p> <p>S 4030-G45Y</p> <p>S 7010-G80Y</p> <p>S 9000-N</p> <p>S 4040-B50R</p> <p>S 2040-Y05R</p> <p>S 7020-Y15R</p> <p>S 8010-Y40R</p>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오로라’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표 21> 작품 오로라 마스크 디자인 변형 1



<표 21>은 ‘내 마음 속의 디에고’를 응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한 ‘오로라’의 배경을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빛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상상하여 사랑의 빛이 그들을 감싸 안는 느낌을 배경에 글리터로 표현하였다. 기존의 마스크 디자인과 우드보드 위에 글리터를 뿌리고 고정시켜 연출하였다. 마스크에 쓰인 S 4040-B50R 색상의 명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추어 사용하였고 S 2040-Y05R 색상의 명도를 낮추고 채도를 높여 사용하였다. 작품의 제목인 오로라처럼 신비스럽고 화려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 점이 특징이다.

4.2.5 작품 V MISS YOU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우드보드, 글리터, 클레이,
종이테이프

작품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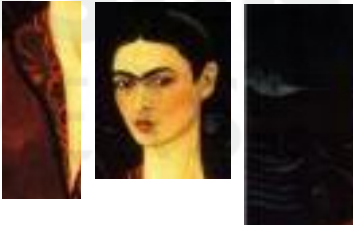

‘MISS YOU(작품 V)’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다. 바다건너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린 선물로 그려진 작품이다.

피부색과 동일한 색으로 베이스를 깔고 주인공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옷깃에 그려진 기하학적 무늬와 갈매기처럼 길게 그려진 눈썹을 모티브로 마스크에 디자인하여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마스크 상단 부분에는 종이테이프로 모양을 잡아준 후 검은 색 클레이를 덧붙여 마스크에 볼륨감을 더 하고 그 위에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었다. 배경은 바다의 풍량과 물결을 그려 기존 작품과 동일하게 하였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0515-G70Y, S 6030-B30G, S 6020-B35G, S 7020-B10G, S 300-N으로 나타났다.

S 0515-G70Y는 5%의高明도와 15%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70%의 노랑(Y)이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6030-B30G는 60%의 중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초록(G)이 30%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6020-B35G는 60%의 중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초록(G)이 35% 가미된 파란(B)색을 사용하였다. S 7020-B10G는 70%의 저명도와 20%의 저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10%의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9000-N의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표 22> 작품 V MISS YOU 디자인 시안

<p>모티브 작품</p>	
	<p>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p>
<p>디자인 제안</p>	<div data-bbox="455 834 762 1256">  </div> <div data-bbox="791 834 1176 1256">  </div>
	<div data-bbox="536 1275 644 1315"> <p>일러스트</p> </div> <div data-bbox="919 1275 1053 1315"> <p>응용모티브</p> </div>
<p>제안색채</p>	

<표 23> 작품 V MISS YOU 마스크 디자인

마 스 크 디 자 인		
	MISS YOU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24> 작품 ‘MISS YOU’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CS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p>  S 0515-G70Y  S 6020-B35G  S 9000-N </p> <p>  S 6030-B30G  S 7020-B10G </p>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MISS YOU’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4.2.6 작품 VI 가면

재 료 : 메이크업 마스크, 아크릴 물감, 자개스티커, 말린 꽃, 큐빅, 글루

작품 설명 : ‘가면(작품VI)’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꽃바구니’ 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다. 모티브가 된 작품은 남편의 새로 생긴 애인에게 헌정하기 위해 그려졌는데 자신의 관대하고 개방적인 마음과 새로운 애인에 대한 호의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자신의 슬픔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마음에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해석하여 작품에 투영하였다. 꽃들은 큐빅, 말린 꽃, 자개로 표현하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였다.

마스크를 가면 모양으로 절단하여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여 베이스 작업을 한다. 노랑과 녹색 계열의 큐빅을 글루를 사용하여 마스크에 붙이고 마스크 중간 중간 비슷한 색상의 자개스티커로 다양한 느낌을 주고 녹색과 붉은색 계열의 말린 꽃을 포인트로 붙여준다.

사용된 색상을 NCS 색 값을 통해 보면 S 6530-Y, S 4040-G40Y, S 4540-G90Y, S 7015-G75Y, S 7515-G70Y, S 1015-R95B, S 4040-R05B, S 5030-R15B, S 7020-B30G, S 0300-N으로 나타났다.

S 6530-Y는 65%의 낮은 명도와 3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의 노란색(Y)을 사용하였다.

S 4040-G40Y는 40%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랑(Y)이 4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4540-G90Y는 45%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랑(Y)이 9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7015-G75Y는 70%의 낮은 명도와 15%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랑(Y)이 75%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7515-G70Y는 75%의 낮은 명도와 15%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노랑(Y)이 70% 가미된 초록(G)색을 사용하였다.

S 1015-R95B는 105의 높은 명도와 15%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스로 파랑(B)이 9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4040-R05B는 40%의 증명도와 40%의 중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뉘앙

스로 파랑(B)이 5%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5030-R15B는 50%의 중명도와 3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의
취향으로 파랑(B)이 15% 가미된 빨간(R)색을 사용하였다.

S 7020-B30G는 70%의 낮은 명도와 20%의 낮은 채도가 포함되어 있는 색
의 취향으로 초록(G)이 30% 가미된 파랑(B)색을 사용하였다.

S 9000-N의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표 25> 작품Ⅵ 가면 디자인 시안

<p>모티브 작품</p>		
	<p>꽃바구니(1941)</p>	
<p>다지인 제안</p>		
	<p>일러스트</p>	<p>응용모티브</p>
<p>제안색채</p>		

<표 26> 작품Ⅵ 가면 아트마스크 디자인

마 스 크 디 자 인		
	가면 전체 디자인	마스크 정면
		
	마스크 우측	마스크 좌측

<표 27> 작품 ‘가면’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작품이미지	NSC 명도채도분석
	
색상 값	NCS 색채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6530-Y S 4040-G40Y S 4540-G90Y S 7015-G75Y S 7515-G70Y S 1015-R95B S 4040-R05B S 5030-R15B S 7020-B30G S 9000-N 	
색 팔레트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작품 ‘가면’의
NCS 표색계 색채적 특성 분석)

V. 결 론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범주에 속해있으면서 페미니즘과 멕시코적 문화를 회화작품에 녹여내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표현한 20세기 대표 여성화가인 프리다 칼로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아트마스크 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작가의 멕시코적이고 자연에서 영향을 받은 색채나 자연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 회화작품을 응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작가의 작품이 뷰티 분야에 더 넓게 적용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 형성 배경, 작품세계를 알아보고 회화 작품에 나타난 색채 및 주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 응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외 선행논문 및 각종 자료들을 참조하여 회화적 특성과 색채를 분석하였고 6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선정된 작품의 특성을 아크릴물감과 각종 오브제 등을 사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작품 I ‘금발의 여인’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 ‘디트로이트 거리의 진열창’에서 색채와 형태를 모티브로 이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사자상의 갈기를 여자의 금발머리로 응용하였다. 메이크업 마스크 반쪽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붉은 계열의 낮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색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핸드페인팅 하였고 나머지 반쪽은 파란색 깃털로 볼륨감을 더하였고 포인트를 주어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작품 II ‘꽃의 노래’는 프리다 칼로의 ‘프레임이 있는 자화상’의 작품에서 회화의 색채와 머리 위의 장식, 꽃, 앵무새 등을 모티브로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빨강과 노랑의 난색 계열의 색이 주를 이뤄 따뜻하면서도 고명도, 고채도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아크릴물감에 스펅글, 글리터를

이용하여 더욱 풍성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3. 작품 III ‘회상’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라 아텔리타, 판초비야 그리고 프리다’에서 회화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선, 면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아크릴물감을 마스크에 두껍게 올려 입체감을 주었고 직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경과는 다르게 구불거리는 느낌을 마스크에 표현하여 대비감을 주었다.

4. 작품 IV ‘오로라’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 ‘내 마음 속의 디에고’에서 회화의 색채와 형태를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주인공의 이마에 그려져 있는 디에고를 최소한의 터치와 색감으로 마스크 반쪽에 표현하였고 나머지 반쪽에는 주인공을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프리다 칼로의 상징인 짙은 눈썹은 큐빅을 넓게 붙여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5. 작품 V ‘MISS YOU’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 ‘벨벳드레스를 입은 자화상’에서 색채와 형태를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주인공이 입고 있는 벨벳드레스의 기하학적 무늬와 피부색을 차용하여 마스크를 디자인하였고 마스크의 윗부분에는 종이테이프로 모양을 잡아준 후 클레이로 입체감을 표현했고 위에 글리터를 뿌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마스크에 재미를 더하였다. 배경 역시 회화의 배경처럼 바다의 풍랑, 물결, 색감을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6. 작품 VI ‘가면’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꽃바구니’에서 색채를 모티브로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아트마스크를 가면 모양으로 절단하여 모양을 잡고 그 위에 녹색계열의 큐빅으로 화려함과 볼륨감을 주고, 말린 꽃, 자개, 보라색의 큐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프리다 칼로의 초기 회화작품은 낮은 채도와 명도를 가지고 있고, 중·후반기의 작품은 높은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있다. 색채적 요소만으로 아트마스크

제작을 하였을 때 각 시기의 작품들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색채만으로도 상반되는 느낌을 주고, 높은 채도와 명도의 작품들은 보다 화려한 느낌을 주어 아트마스크를 디자인 하는데 적합하였다.

회화작품에서 주된 모티브가 되는 자연의 일부부인 꽃, 꽃잎, 식물, 새 등과 그림에 나열되듯 그려져 있는 장식물들은 아트마스크의 모티브로 적용하는데 적합하였다. 기존의 마스크가 아닌 회화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는 만큼, 표현에 제한이 되지 않았고 더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였다.

프리다 칼로의 회화 속에서 나타난 색채들은 자연의 소재들 속에서 나오는 내추럴함과 작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색채의 공존으로 인해 다양한 영감을 준다. 이에 그녀의 작품에서 표현된 색채로 아트마스크는 물론이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트 메이크업 및 판타지 메이크업에 응용되어 프리다 칼로의 회화작품이 대중들에게 더욱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우택. (2003).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소화.
- 르 클레지오. 신성림 역. (2002). 「프리다 칼로,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 다빈치.
- 신현숙. (1992).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 안연희. (1999).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 정금희. (2003).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재원.
- 헤이든 헤레라. 최윤아 역. (1992). 「프리다 칼로」. 자유문학사.
- 헤이든 헤레라. 김정아 역. (2003). 「프리다 칼로」. 민음사.

2. 국외문헌

- Hayden Herrera. (1990). 「Why Frida Kahlo Speak to 90's?」. New York times, Section II.

3. 간행물

- 윤영순. (2006). 「프리다 칼로 현상과 페미니즘 미술」. 라틴아메리카연구, 19(3), pp195-223.

4. 학위논문

- 고윤숙. (2004). 「프리다 칼로(Frida Kahlo)와 케테 콜비츠(Kethe Kollwitz)의 작품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권나현. (2012).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난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학교 친환경디자인 대학원.
-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서연. (2005). 「페미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성(gender)표현에 관한 연구 : 프리다 칼로,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주. (2000). 「페미니즘 미술의 특성에 대한 연구 - 1960년대말 이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의만. (2006). 「프리다 칼로 작품의 초현실주의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민. (2008).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나타난 회화 기법 분석」.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은. (2014).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박현주. (2011).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연구 - 멕시코 전통예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 대학원.
- 배찬우. (2013). 「초현실주의 경향의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을 목적으로 -」.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백미경. (2009).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나타나는 상징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미성. (2007).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자화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 신미정. (2010). 「프리다 칼로의 회화적 자아표현 연구 : 자화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 신혜순. (2007). 「여성의 모형 원형 이론에 의한 프리다 칼로 자화상 해석」.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유정주. (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원.
- 윤소진. (2005). 「Frida Kahlo의 회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 이성민. (2005). 「멕시코 전통 미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프리다 칼로 회화

-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미. (2010).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회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유니. (2009). 「생명성 상징과 내적 자아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의정. (2004). 「Frida Kahlo의 회화세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혜영. (1999). 「FRIDA KAHLO의 자화상에 나타난 내면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최은경. (2007). 「프리다 칼로(Frida Kahli)에 관한 연구 - 경험으로서의 예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5. 도록

- 방상훈, 이창섭. (2015)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화가 프리다 칼로」. 조선일보, 국민체육진흥공단.

6.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363&cid=40942&categoryId=32856>

<http://justinceo.blog.me/30154420780>

<http://blog.daum.net/wisdomhouse/18334889>

<http://blog.naver.com/kwwoolim/220424444127>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1004

네이버 미술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8&contents_id=9265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22131255&code=990100



ABSTRACT

Design proposal study : Art masks that applied
features of Frida Kahlo's Painting

Lee, Kyu-Jin

Major in Beauty Colo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Follow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forms and the needs and desires of modern people, the number of artists who attempt to mix different fields into their artworks and come closer to the public are growing. Such trend can be seen in the cosmetic industry, wherein many artists are naturally appealing to the public by collaborating with cosmetic companies. A slew of researchers in the art makeup area is applying the existing works of artists into art makeup, hair art, or nail art, expanding the diversity and range of expression in the cosmetics field.

This study analyzed and applied the paintings of Frida Kahlo, the female painter and representative of early twentieth century surrealism and feminism. The study proposed to use the sentiments she tried to express in her paintings as the motif for the art mask design. It looked into the background and the world of the

paintings and divid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theme, formation, and color of each painting. The researcher then selected six paintings and analyzed such characteristics in each painting and proposed designs of six art masks, taking after the thre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Kahlo rose to become a famous female painter as she channeled her painful reality into her artwork, and the study observed the world of paintings she tried to express in her works. It also made use of her paintings to express it in art masks, proposing another type of design by creating another way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 of her paint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study are the following. The researcher read the literature, preceding studies, and journals to analyze Kahlo's life, paintings, its world, the background of each painting, and the thematic, formative,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The researcher then made use of such characteristics to design and create six art masks.

The study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paintings she drew in her initial career had low chroma and brightness, whereas the works at her later years had high chroma and brightness. When the researcher designed the art masks using only the color characteristic such as above, the color itself gave off a contrast look to each time period of her paintings. Her paintings with high brightness and chroma gave a luxurious feeling, that it was fitting to design the masks.

Second, using the inspirations gotten from the paintings as the design of masks allowed an abundance of expression as it gave no limit in materials and expressions in production.

Third, the main subject of each painting, that is, the painter herself, proved to be a limit in designing the mask, but using small elements such as plants, flowers, and animals provided a way to overcome such limit.

The researcher hopes that the application field of Frida Kahlo, which only centered on fields related to fashion, aesthetics, and therapy, would be expanded through this study and that it will become an opportunity where people can come closer to understand what were once considered esoteric and difficult to comprehend, by reinterpretation of rich colors and various images. The researcher also hopes that her works will be further utilized in the field of beauty cosmetics.

【Keyword】 Frida Kahlo, Painting, Art mask, NCS Color, Design